



300-1-091. 신문조서(金在鳳 외 19명 치안유지법 위반)

■ 1927년 2월 金在鳳 외 19명의 피고인 신문조사 내용 수록

- 이들의 활동내용은 문서 300-1-89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신문조사의 내용만을 기록한다.
- 金在鳳은 治安維持法 위반으로 1927년 2월 17일에 판사의 1회 피고인 신문조사를 받았다. 인정신문에서 사건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확인해 갔다. 2회 신문조사는 2월 18일에 있었다. 金料全에 대한 판사의 피고인 신문조사는 2월 21일에 실시되었으며, 金鎭熙에 대한 피고인 신문조사는 2월 21일, 獨孤佺·尹德炳에 대한 피고인 신문조사는 2월 24일에 실시되었다. 陳秉基·宋德滿은 2월 25일 金尙珠·朴吉陽은 2월 26일에 실시되었다.
- 朴憲永은 2월 28일에 피고인 신문조사를 받았고, 宋啓夏는 3월 1일, 朴有禎은 3월 2일, 崔致鎬·獨孤佺의 2회 신문조사는 3월 2일에 실시되었다. 朴元根·林亨寬·洪增植은 3월 3일에 피고인 신문조사를 받았고, 申哲洙·張順明·曹利煥·趙東根·金景瑞 등은 3월 4일에 피고인 신문조사를 받았다. 金在鳳은 3월 5일, 朱鍾建·徐廷禧는 3월 7일에 피고인 신문조사를 받았다. 신문조사 내용은 각자의 활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었다.